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손보나

자영업자 영업시간 단축·음식물 제공 제약에 불만
"코로나19 방역대책 이해하지만 장사 제대로 못해"
정부, 16일 지자체와 논의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방역 일환으로 오는 17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에 대한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또 이 기간 홀덤펍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영업할 수 없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내 취식이 불가능 하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자치경찰과 소방관으로 편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팀 가동후 일주일간 199개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라면)을 제공하거나, 오후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는 행위 등 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업주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또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하는데,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한 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또는 하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기간제 교사 10명중 6명꼴 '담임' 맡아

정규직 교사는 기피… 담임 비율 매년 감소세

교육청 "기간제 교사에게 맡길시 학교 소명 받기로"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떠맡을 경우 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한 학교는 선정 이유를 담은 소명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는 감소하면서 이뤄졌다. 담임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맡는 상황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경우는 2018년 59.75%, 2019년 59.06%, 2020년 62.94%로 급증했다. 반대로 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은 2018년 66.84%, 2019년 66.31%, 2020년 64.76%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 학교에 가급적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지 말라는 권고만 했다"면서 "올해부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가 없다면 학사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에 제주지역 정규직 교사 채용을 확대해달라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만약 확대가 안된다면 기간제 채용 권한이라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기간제 교사 수는 2018년 318명, 2019년 381명, 2020년 40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대 정시모집 마감

경쟁률 평균 3.82 대 1
수의예과 31.8 대 1 '최고'

제주대학교는 2021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총 1113명 모집에 4255명이 지원해 평균 3.8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거점국립대 9개교 중 두 번째 높은 경쟁률이다.

모집 군별로 '나군'이 526명 모집에 1373명이 지원해 평균 2.6 대 1, '다군'은 587명 모집에 2882명이 지원해 평균 4.9 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모집 단위별로는 '다군' 수의예과(일반학생전형)가 24명 모집에 762명이 지원해 31.8 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다군' 의예과(일반학생전형)는 20명 모집에 291명이 지원해 14.6 대 1로 뒤를 이었다.

진선희기자

걷기운동하는 시민들 12일 제주시 한라수목원을 찾은 시민들이 녹은 눈 사이를 걸으며 걷기운동을 하고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코로나19 확산세 한풀 꺾였지만…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 일평균 4.7명으로 소규모 감염은 여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1일 하루 동안 2명(제주488~489번), 12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명(제주 490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488번 확진자는 지난 7일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 471번 확진자와 동시간대 음식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방역당국은 해당 음식점에서 전파가 이뤄졌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점과 관련한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489번 확진자인 경우, 제주 44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490번 확진자는 제주지역 확진자와 관련 동선으로 전수검사를 통해 확진됐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제주지역 일평균 확진자 수는 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10일 5.6명과 비교해 0.9명 감소한 수치다.

이달 들어서는 6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12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9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12일 하루 동안 14명의 도내 확진자가 퇴원이 결정됨에 따라 도내 확진자는 63명, 격리해제자는 427명(이관 1명 포함)이·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효돈천과 하례리,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

환경부 평가 전국 1위
2021~2023년 3년 유효

효돈천(사진)과 하례리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14곳을 대상으로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서귀포시 효돈천과 하례리를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2021~2023년 사이 3년이다.

환경부는 국가생태관광지역 가운데 지정 6년차를 맞는 5곳과 지정 3년차인 6곳, 개선이 필요한 3곳 등 모두 14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23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생태관광지역 14곳 모두 기준점수 이상을 받으며 재지정됐다. 특히 효돈천과 하례리는 평가에서 91.3점을 획득하며 전국 1위의 성적으로 재지정의 영예를 안았다. 전체 평균점수 78.5점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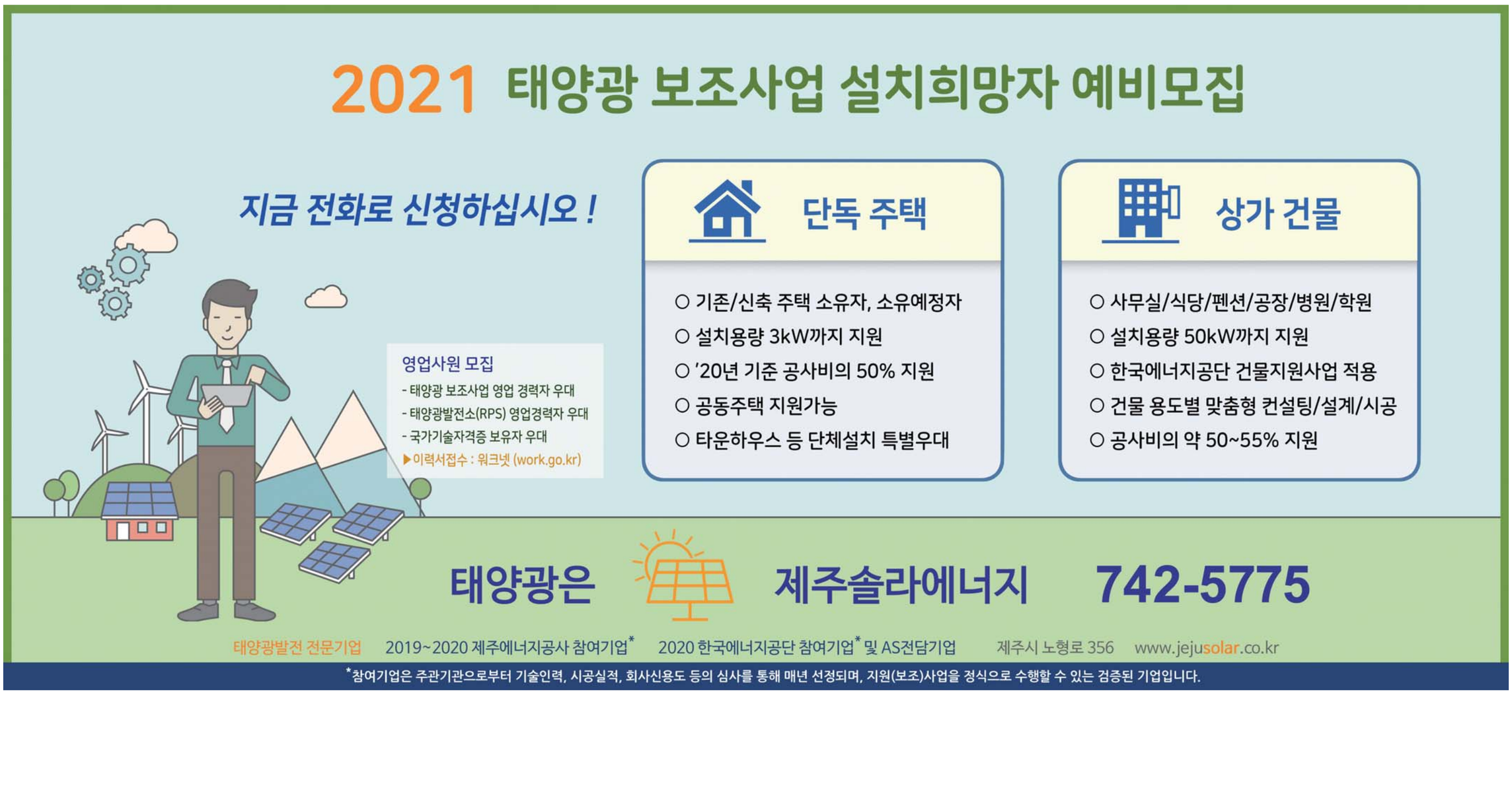
효돈천과 하례리는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 12월 생태관광지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현영종기자

특수교육 계절학교도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해 겨울방학 기간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계절학교'도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021 겨울방학 계절학교'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절학교는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목공예활동, 요리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서귀포교육지원청은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학생 136명에게 요리, 미술 등 체험 세트를 배부하고 각 가정에서 특기적성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험 세트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송은범기자